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제 41 - 28 호

2024년 7월 14일

- 여름공동체생활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7월 25일(목)~28일(일)
주제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여름공동체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오.
- 연령별사랑방의 연합 찬양모임이 오늘 오후 1시30분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가 여름 방학을 맞이합니다.
꾸러기학교 : 7월18일 ~ 8월21일
어린이학교 : 7월18일 ~ 8월21일
멋쟁이학교 : 7월8일 ~ 8월16일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
조향민 · 최신혜 집사 (범사에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아영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시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하나님 사랑 실천하다 하나님께 갑니다.”

- 국제 기독교 공동체 英 ‘브루더호프’의 삶 -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세상의 많은 책들은 “돈 벌고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그동안 못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 실천하면서 남은 생애를 즐기다 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나이 드는 내가 좋다’(포이에마)의 저자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는 이제부터라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자고 말한다. 1920년 설립된 국제 기독교공동체 ‘브루더호프’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토프 목사의 메시지는 시공을 뛰어넘어 울림이 크다. 책을 한국어로 번역, 소개한 원충연(41), 아일린(32) 부부를 최근 영국 런던에서 만났다.

크리스토프 목사는 책에서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등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먼저 인정하자고 말한다. 죽음은 물론 두려워지만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해주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용기를 주며 격려하자는 것이다.

노년의 사람들이 이때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다. 원씨는 “그 한 사람이 없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외롭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상은 이미 일할 나이가 지난 노인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원씨는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서 영성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뒤 2004년 ‘브루더호프’ 공동체 미국 지부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영국인 아일린씨와 결혼한 뒤 런던 인근 다벨에 있는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정착해 세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이 공동

체는 영국, 미국, 호주로 퍼져나가 10~300명 사이의 공동체 마을 20여개를 이루고 있다.

수백명이 마을을 이뤄 살아가는 공동체생활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씨는 반나절은 가구를 만들고, 반나절은 공동체 출판사인 ‘플라우’에서 일한다. 공동체 사람들은 매일 모여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걸모습이 약간 다를지 몰라도 삶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똑같다.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보통 사람들이예요. 실수도 많이 하고 매일 어려움을 겪는 건 똑같아요. 결국 서로 돕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게 생의 경험을 통한 지혜와 조언을 구하며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공동체 생활을 통제하는 규율은 거의 없다. 다만 여러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갈등을 풀기 위해 필요한 규칙이 하나 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를 하는 것이다. 갈등이 생기면 해를 넘기지 않고 당사자를 찾아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한 뒤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공동체의 일치가 이뤄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셔서이지,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예요(웃음)”

그는 공동체에서 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계속 찾는 과정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한국에서 사는 분들 역시 삶의 현장에서 그 뜻을 찾는 과정을 겪고 계시잖아요. 이곳에서나 그곳에서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글 = 김나래 기자>

한주간의 말씀

“ 그 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
<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86장 395장 539장

기도 : 진정행 권사

성경 : 호세아 10장

제목 :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1-3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스라엘

해석: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면 잘 보이게 꾸미며 자신 중심으로 해결하려 한다.

적용: 내 기준에서 신앙을 판단하지 말자. 풍요로울 때 조심하자

4-8 독초처럼 퍼지는 불의

해석: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우상에게만 기대게 된다.

적용: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자.

9-15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의 결과

해석: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아닌 죄악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

적용: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회에 정의를 심자. 여름공동체생활을 기회로 삼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성서일기

더운 여름 기후 위기를 생각하며

더운 여름 안녕들 하신가요? 6월부터 시작된 더운 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져 세계 곳곳에서 폭염으로 사람들이 사망하고, 산과 들에 불이 나서 동식물이 죽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 수해나 나고 사람들이 죽거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좀 더 편안함, 더더욱 편안함을 추구하고, 어느 순간 견잡을 수 없는 편안함이라는 욕심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배려라는 마음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아니지요. 자연은 우리 일상에서 이미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 배려,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주변의 사람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엔 자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우리 인간들에게 한없이 자신들을 내어줍니다. 베풀어 주기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것 없이 주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받는다는 것엔 미소와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만, 준다는 것은 많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행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의 뜨거운 여름, 앞으로의 더 끓어오를 여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후학자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행동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지금의 이 기후 위기를 위하여 행동할 때임을 알게 되기를. 그것만이 함께 잘 살아가는 길임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 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비움사랑방 최연우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4 : 7-10
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5 : 8
38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사무엘하 6 : 1-9 설교자
421 새작사랑방
“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288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향민 최신혜 / 봉헌위원 : 양기모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언약궤의 행방.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는 기럇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오래 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놓여있었습니다.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언약궤를 수송하려고 했지만 수송 책임자인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다윗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었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과 정성이 통하지 않는 일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자기 뜻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차현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양양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연일 비로 가득한 일기예보를 보며 날씨를 주관해주시기를 꾸러기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과는요 놀랍도록 적절한 날씨를 허락해주셔서 바다 해수욕, 오션플레이 물놀이, 계곡 물놀이, 오색주전골 산책, 낙산사 탐방, 양양 오일장 장보기까지 계획한 일정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번 여행은 특별히 다섯 꾸러기의 엄마들이 모두 함께 가셨어요. 여름여행과 가을여행처럼 두 밤을 자는 여행은 두세 분 엄마가 식사를 챙겨주는데 이번에는 엄마들이 다함께 참여하신 겁니다. 꾸러기들처럼 부모님들도 사이가 좋아 함께하기를 즐기는 모습 참 감사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장엄한 설악산, 검푸른 동해 바다 그리고 구름 가득한 하늘까지 양양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박 3일 동안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씩씩하고 즐겁게 함께 잘 지낸 우리 다섯 꾸러기들(특히 첫 여행을 훌륭하게 해낸 막내 하온이) 참 잘했어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오랜만에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장마기간이라 그런지 덥고 습한 날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인데 어린이들은 비오는 날보다는 습하더라도 해가 찡찡한 날이 더 좋다고 합니다. 더워도 농구를 하고, 땀이 비오듯 해도 트램플린 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린이학교는 방학을 앞두고 요 며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기말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면담은 오랜 시간 긴장하며 앉아 있어야 하는 교사들에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부모님을 통해 가정과 학교의 교육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함께 맞춰나갈 때에 오히려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니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 해주신 가정과 공동체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언제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종강여행을 끝으로 멋쟁이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행과 총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멋쟁이들의 모습들은 피곤해보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면담 기간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학기의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며, 멋쟁이 한 명 한 명의 전인격적 성장과 성숙을 확인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되리란 희망과 가능성으로 기쁨을 얻는 장이기도 합니다. 방학생활을 이어가는 멋쟁이들도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을 잘 실천하면서 보람을 얻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수요 식사 당번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각자 맡은 요일에 식사 당번을 하고 있다. 그 중에 나는 수요일 식사 당번이고, 나의 식사 당번 동료는 이근자 사모님, 김영화 권사님, 전향옥 집사님과 정다운 선생님이다. 언뜻 보면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 학교 교사가 3명이나 돼서 학교 여행이나 행사가 있으면 이근자 사모님과 김영화 권사님이 독박 쓰시는 그런 구성이다.

7월 10일 수요일. 오늘도 어린이학교 하교 운행을 다녀와서 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싶지도 않은 몹시 후덥지근한 날씨인데, 이근자 사모님은 이미 가스불 앞에서 열일 하고 계시고, 김영화 권사님은 개수대에서 뭔가를 열심히 씻고 계신다. 두 분 모두 언제나 그렇듯이 웃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신다.

파는 조리대 위에 곱게 썰려 있고, 가스불 위 솥에는 알감자가 간장 옷을 입고 있고, 압력밥솥도 이미 김을 내고 있다. 오늘의 메뉴는 콩나물국, 보리밥, 알감자조림과 어린이들을 위한 조미 김. 그리고 깻잎나물과 오이무침은 냉장고에서 꺼내기만 하면 됐다.

멋쟁이가 방학해서 없는 오늘은 식사 당번이 상차림도, 설거지도 다 한다. 함께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의 자리와 몫을 알고, 자연스럽게 합을 맞추게 되는데 요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상을 차려야 하고, 또 누군가는 요리한 도구들을 씻어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것들을 한다. 이제 상이 다 차려지고, 수요일에배가 있는 날이어서 다른 요일보다 이른 시간인 6시에 식사를 시작한다. 밥과 국과 반찬을 개인 그릇에 담아 먹으며 옆 사람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서 하루의 수고는 접어놓고, 맛있는 식사로 위로받는 시간. 오늘은 알감자조림 양념에 숨이 폭 죽어 있는 고추가 특히 맛있어서 밥을 한 숟갈씩 자꾸 더 덜어 먹었다.

상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합을 맞춰 다 끝내고 나서 밖으로 나오니 소나기 내린 뒤의 하늘이 장관이다. '또 잘 끝냈네. 묻어가는 수요 식사 당번.' 배도 부르고, 맘도 부른 그런 저녁이다.

그루터기사랑방 전선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91장, 393장

성 경 : 에베소서 1:17-19

말 씬 :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가자 지구 평화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휴전 협상이 잘 진행 되어서 무차별적인 폭력이 끝을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한국교회의 정결함을 위해 >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여름공동체생활을 위해서
 - 2) 사랑방공동체학교의 학기말 정리를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비가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공기는 습한 무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멋쟁이가 없어 단출해진 식사를 하면서도 모두 공동식구들을 위해 애쓰며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매일 배불리 맛난 음식으로 채워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쓰신 모든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을 앞두고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주변 곳곳을 정리하고 청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는 우리 공동식구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름공동체생활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